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10.7.(수) 10:00	배포	2026.10.6.(화)		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1국 증권기획조정팀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이원흠	(02-3145-7012)
	금융투자검사2국 자산운용기획조정팀	책임자	국 장	최상두	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이진태	(02-3145-7620)
	금융투자검사3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오세천	(02-3145-7830)
		담당자	팀 장	조영석	(02-3145-7832)

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「증권사 감사 간담회」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26.10.7.(수)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(총 21사)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
 - 최근 실시한 주요 검사 결과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자체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
 - 당국과 업계가 함께 내부통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사전예방적 내부감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

「증권사 감사 간담회」 개요

- ☑ 일 시 : '26. 10. 7.(수) 10:00 ~ 11:10
- ☑ 장 소 : 금융투자협회 23층 회의실
- ☑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,
금융투자검사1국장, 금융투자검사2국장, 금융투자검사3국장
(업계) 금융투자협회, 21개 증권사(종투 10사, 중형 11사) 감사 등
- ☑ 내 용 : ①모두 발언(서재완 부원장보)→②최근 주요 검사 결과* 및 내부통제
유의사항 안내→③의견 수렴 順으로 진행
* 상품 설계·제조 관련 컨설팅 검사, 증권사 LP 업무 관련 주식대차 영업행위 검사 등

1. 서재완 부원장보 모두발언

- 최근 증권업계가 역대급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낸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·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으나
 - 증권사의 現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
 -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·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, 영업 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
 - ‘기본조차 안 지키는’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어도,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큰 상황
 - 그간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했던 투자자 보호 선언·서약 등이 더 이상 ‘임시방편적인 구호’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,
 - 감사는 객관적·중립적 시각 하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정말 ‘제대로’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기를 바람
 - 회사의 감사조직은 ‘사후약방문식 감사’가 아닌 ‘사전예방적’ 감사를 통해 선제적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
 - 대표이사 등 경영진도 내부감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, 인적·물적 지원 등을 통해 감사 역량을 적극 제고할 필요
 - 금감원 역시 증권사의 자율적 내부감사기능과 감독당국의 검사가 유기적으로 연계·협업*되도록 소통을 지속하겠음
- * 금감원-회사 간 소통·협업 기반의 내부통제 컨설팅 검사, 내부감사협의제 등
- 또한,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하여, 각 회사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IT보안·점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
 -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을 신속·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해달라고 당부

2. 간담회 논의 내용

- **(금감원)** 최근 상품 설계·제조 프로세스 점검 결과 및 LP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
 -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된 「신용용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*」이 안착되도록 투자자 안내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
- * ①신용공여 취급 규모 축소(자기자본의 100% → 90% 이내 자율관리), ②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용자 비중이 자사 신용용자 총액의 15% 초과 시 자율 축소 등
- 허위·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「광고업무 종합개선안」 관련 후속조치가 적정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 달라고 당부
- **(증권사)** 참석자들은 감사조직이 ‘투자자 중심’ 시각 하에서 사전예방적 감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
 -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영업 과정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·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변
 - 자체감사 외에도 컨설팅 검사 등을 통해 감독당국과 협업·소통하며 자율적·주도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언

3

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- **(기대효과)** 금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당국이 ‘투자자 중심’ 내부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, 향후 당국의 검사와 회사의 내부감사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
- **(향후 계획)**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기능 강화 및 감사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, 항상 ‘귀를 열고’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